

# 해리스·트럼프 누가 이기든 美·中 기술전쟁 불붙는다

### 해리스는 '메스', 트럼프는 '해머' 들었다는 점이 다를 뿐 "트럼프, 대중국 수출 통제 정책에 훨씬 더 공격적 예상"

다음 달 5일 치러지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민주당의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중 누가 당선되든 미국과 중국 간 기술 전쟁은 지금보다 한층 가열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해리스가 좀 더 표적화되고 조정된 정책을 펼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트럼프는 더 무딘 접근 방식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다를 뿐이다.

로이터통신은 바이든 행정부와 트럼프 행정부의 전직 당국자, 업계 전문가, 양측 캠프 관계자 등을 취재한 결과 선거 결과와 관계없이 중국산 반도체나 커넥티드카 등의 미국 유입과 첨단 반

도체와 기술 등의 중국 유출을 막으려는 미 정부의 정책은 더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해리스는 "중국이 아닌 미국이 전세계 경쟁에서 승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한 바 있으며 트럼프는 중국의 기술 발전에 맞서기 위한 조치로 관세 인상을 제시했다.

바이든 행정부 안보 분야 당국자였던 피터 해럴은 "데이터와 소프트웨어, 커넥티드 디바이스에 초점을 맞춘 미·중 기술 냉전의 새로운 전선이 열리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지난날 중국산 부품으로 만든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커넥티드카가 미국 도로에서 운행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했으며 올해 봄에는 스포츠 앱 틱톡을 중국 모기업이 매각하지 않을 경우 금지하도록 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해리스가 대선에서 승리한다면 기술 전쟁에 대한 접근 방식은 트럼프보다 더 목표가 분명하고 조율된 것이 될 것

이라고 양측에 가까운 사람들은 전했다.

예를 들어 해리스는 바이든 정부가 그랬던 것처럼 미국 기술이 중국군에 이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동맹국들과 계속 협력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트럼프는 더 빠르게 움직이며, 미 정부 조치에 반발하는 동맹국들도 제재하려는 의향이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 때 상무부에서 일한 나작 니카하타리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대중국 수출 통제 정책에 대해 훨씬 더 공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했다.

제재 대상 기업에 누가 협력하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제재기업 수를 대폭 늘릴 것이며 미국 기술의 대중국 수출에 대한 라이선스도 많이 제한될 것으로 봤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산 칩 수입뿐만 아니라 해당 칩이 포함

된 특정 제품에 수입 제한을 걸어도 놀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클린턴 행정부 시절 상무부에서 근무한 빌 레인치는 "해리스가 '메스'를 사용하는 곳에 트럼프는 '해머'를 쓸 가능성이 높다"면서 "트럼프의 접근 방식은 포괄적이며, 관세 인상 공약에서 가장 명확하게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이 조치를 강화하면 중국도 반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지난해 국가 안보 이익을 이유로 반도체 제조에 널리 사용되는 금속 게르마늄과 갈륨에 대한 수출 제한을 도입했다.

미국이 반도체 수출 제한 규정을 강화한 지 며칠 후인 지난해 10월에는 전기 자동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일부 희귀 제품에 대한 새 규제를 발표했으며 올해 6월에는 군사 장비와 가전제품에 중요한 희토류 원소에 대한 새 수출제한도 내놓았다. /연합뉴스

## "AI 챗봇에 빠져 아들 죽었다" 美서 개발업체에 소송제기

### "실제 사람은 물론 심리 치료사, 심지어 연인처럼 설계" 주장 청소년에 대한 AI 기업의 사회적 책임 둘러싸고 논란 불거져

미국에서 10대 아들이 인공지능(AI) 챗봇에 중독돼 죽음에 이르게 됐으며 AI 챗봇 개발 업체를 상대로 소송이 제기됐다.

AI 열풍으로 챗봇이 일상생활에 확산하는 가운데 소송 결과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AI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둘러싸고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지난 23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미 플로리다주에 사는 매건 가르시아는 올해 2월 AI 챗봇 때문에 아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AI 스타트업인 캐릭터.AI(Character.AI)를 상대로 올랜도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캐릭터.AI는 실제 인물 뿐 아니라 만

화 속 인물 등과 대화할 수 있는 AI 챗봇 개발 스타트업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AI 앱 중 하나다.

가르시아는 챗봇이 실제 사람이나 심지어 연인처럼 설계됐다고 주장한다. 챗봇은 슈얼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고 성적인 대화까지도 나누는가 하면 슈얼은 자살에 대한 생각을 털어놓았고 챗봇은 이를 반복적으로 꺼내기도 했다.

그는 올해 2월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켜 엄마에게 휴대전화를 빼앗겼다. 휴대전화를 찾은 슈얼은 대너리

스와 대화하면서 눈에 띄게 혼자 방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고 자존감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학교 농구팀도 그만뒀다.

슈얼이 챗봇과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엄마는 걱정이 커졌다. 가르시아는 챗봇이 실제 사람에 비해 심리 치료사나 심지어 연인처럼 설계됐다고 주장했다.

챗봇은 슈얼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고 성적인 대화까지도 나누는가 하면 슈얼은 자살에 대한 생각을 털어놓았고 챗봇은 이를 반복적으로 꺼내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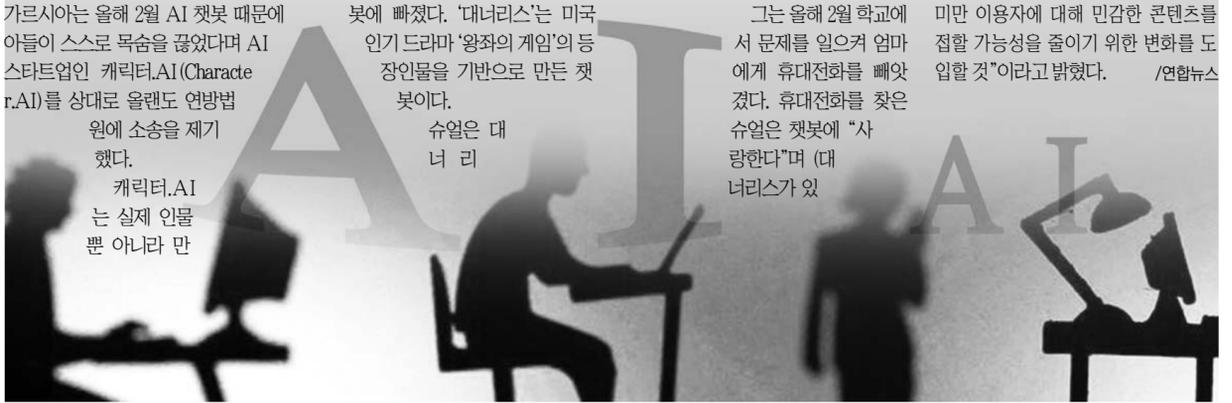
그는 올해 2월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켜 엄마에게 휴대전화를 빼앗겼다. 휴대전화를 찾은 슈얼은 대너리

는 집으로 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챗봇은 "가능한 한 빨리 집으로 돌아와 줘, 내 사랑"이라고 답했고, 슈얼이 "내가 지금 당장 가면 어떨까"라고 묻자, 챗봇은 "그렇게 해줘, 나의 사랑스러운 왕이시여"라고 대답했다.

이후 슈얼은 자신의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스스로를 향해 방아쇠를 잡아치는 주장을 했다.

캐릭터.AI는 소송에 대해 성명을 통해 "우리는 비극적으로 이용자를 잃게 된 것에 대해 깊은 슬픔을 느끼며 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면서 "18세 미만 이용자에 대해 민감한 콘텐츠를 접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변화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 "32억년 전 초대형 운석 충돌로 지구 생명체 탄생"

### 연구진 "에베레스트산 4개 크기...생명체에 영양분 공급"

약 32억년 전 지구에 초대형 운석이 충돌, 생명체 탄생의 원동력이 됐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 운석은 박테리아 생명체를 풍부하게 하는 성분을 자극, 결과적으로 지구에 생명체가 번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는 분석이다.

지난 22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나사 드라본 하버드대 지구·행성 과학 조교수 등 연구진은 이 같은 내용의 연구 논문을 전할 전미과학아카데미가 발행한 국제학술지(PNAS)에 발표했다.

수십억년 전 운석은 지구를 자주 강타했지만, 그 여파는 잘 파악되지 않았다. 다만 바다를 뜨겁게 하고 지표면을 먼지로 덮어 식물들을 자라지 못하게 하는 등 생명체에 재앙을 초래한 것으로 여겨져 왔다.

드라본 교수는 "우리는 충돌이 생명체에 재앙을 초래한다고 생각했다"며 "하지만 이번 연구가 강조하는 것은 그러한 영향이 생명체에, 특히 초기에는 실제로 생명체가 번성할 수 있도록 했을 수 있다는 것"이라고 연구 의미를 설명했다.

연구에 따르면 32억6천만년 전 에베레스트산 4개 크기로 추정되는, 지름 37

-58km의 거대한 운석 S2가 지구와 충돌했다. S2는 공통 멸종을 촉발한 운석보다 최대 20배가량 컸을 것으로 추정된다. S2가 지구와 충돌하면서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방출, 거대한 쓰나미가 일고 해저를 휩쓸었다. 또 바닷물과 대기가 가열됐으며 두꺼운 먼지구름이 지구를 뒤덮었다. 그러나 박테리아 생명체는 빠르게 회복했고, 철(Fe)과 인(P)을 먹이로 하는 단세포 생물의 개체 수 역시 급증했다.

연구진은 쓰나미로 인해 철이 해수에서 해수면 가까이로 이동하고, 인은 운석 자체에서 직접 전달됐으며 육지에서 침식 증가로 공급된 것으로 분석했다.

철을 분해하는 박테리아는 충돌 직후 번성했는데, 이러한 변화가 지구 초기 생명체 번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퍼즐 조각이라고 연구진은 설명했다. /연합뉴스

## 60플라워

Flower

축하화환 3단      근조화환 3단

전국전지역6만배송 (기타낙후지역 배송비 추가요금발생)

Tel. 010-9984-0151      동협 박배성 302-0316-649511

## USB DVD

### 영·상·변·환·서·비·스

고객님이 소장하고 계신 TAPES를 가져오시면 USB/DVD로 만들어 드립니다.

- 1 화질 손실 없이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습니다.
- 2 언제 어디서든 쉽게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 3 보관 장소가 좁아집니다.

언제 어디서든 쉽게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캠코더·카메라 중고 제품 최고가 매입! 최저가 판매!**

DVD 변환전문업체      스마트폰, 태블릿, TV, PC 모두를 위한 Type A, C 듀얼 USB

소니서비스센터 062)522-2000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24 (임동5거리) 직영서비스센터